

# 2019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

## 사례 작성 가이드라인



# 2019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 사례 작성 가이드라인



최우수상

①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싶다**

보람이와 함께하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았고 그 사이에 많은 추억들을 함께 쌓았다. 함께 다양  
한 운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리고 훨씬 가까워 질 수 있었다. 그  
리고 "혹시 해보고 싶은 문화활동이 있어?"라고 물으면 "물랴요. 잘 모르겠어요"라고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던 보람이에게 나는 피아노 연주회라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다. 평소 보람이  
가 관심있어 하던 연주회 티켓을 예매하여 함께 관람하였고 그날의 설렘 가득한 보람이의 표정은 아  
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② **멘토: 안진경(가명)  
멘티: 하보람(가명)**

⑤ '예그리나' 멘토로 활동하면서 나도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고, 나 또한 멘티를 통해 책임감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보람이는 첫 만남부터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난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하였을  
뿐이다. 그렇기에 보람이와 함께한 나날이 내겐 너무 소중하고 앞으로 보람이와 함께할 날들이 더욱  
기대된다. 때론 언니처럼, 좋은 선생님 같이 보람이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싶다. 보람아 언니  
는 늘 너를 응원해!

사춘기 시절 방황하던 나를 이끌어 학업에 열중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선생님의 가  
르침처럼 멘티에게 사춘기의 이정표 같은 역할이 되고 싶어서 "예그리나" 멘토링을 시작하였다. 멘  
토링을 통해 만난 보람이(가명, 여, 15세)와 함께한 3년이라는 시간은 나와 보람이 모두가 참 많이  
변하게 하였다.

보람이는 쌍둥이 언니와 함께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이다. 어머니의 건강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  
려운 보람이네는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할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 처음 만난 보람이는 또래 보  
다 자기표현에 서툴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다. 피아니스트라는 꿈이 있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인해 고민하는 보람이의 모습을 보며 나는 보람이의 꿈을 지지하는 멘토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첫 만남 이후 보람이의 꿈을 지지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나는 그 해답을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  
었다. 네 번째 만남에 "보람이는 왜 멘토링 활동을 신청했어?"라는 나의 질문에 보람이는 "수학 문  
제에 자신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신청을 했어요."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장학금을  
받으며 피아노 전공으로 좋은대학에 가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보람이의 이야  
기에 우리의 멘토링은 '성적 향상'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고 그렇게 나는 매우 최선을 다해 보람  
이를 지도했다.

결국 3년 간의 멘토링 활동이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평소 복지관 피아노교실에서 주로 연습을  
하던 보람이에게 고교 진학 후 학업은 피아노 연습을 불가능하게 하는 존재였다. 학교를 마치는 시간  
과 피아노교실을 마치는 시간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멘토링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하  
루는 보람이가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 놓았다. "선생님, 저 피아노를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치면 도저히 연습할 시간이 나지 않아요. 장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라는 침울해지는 이야  
기에 나 또한 막막했다. 결국 멘토링 담당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복지관이 편의를 제공하여  
보람이의 연습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었고 나와는 연습이 끝난 시간에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첫 만남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피아니스트 꿈에 대해 고민하던 보람이는 "3년 동안 함께하며 선생님  
보다 언니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피아노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항상 칭찬해주셔서  
친구들과도 못할 이야기들을 스스로없이 할 수 있었어요. 공부와 피아노 연습하는 것 모두 선생님께  
서 응원해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라며 꿈에 대한 확신과 함께 밝고 당찬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다.

멘토링은 보람이에게 참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나와 함께하는 동안 자신감, 학업성적도 많이  
향상되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꿈을 향한 적극적인 자세이다. 집에 피아노가 없어 복지관이 아니면

① 사례 타이틀 작성 : 사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긴 타이틀 작성

② 사례 대상자 명 : 멘토, 멘티, 활동기관명 등 명시 (\*멘티의 경우 가명 사용)

③ 사례 인트로 : (제출 사례의) 멘토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마음가짐, 상황 등을 통해 멘토링 설명

④ 멘티의 변화 : 멘토링을 통해 성장하거나 변화된 멘티의 모습, 멘티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나 정량적 성과

⑤ 멘토의 변화 : 멘토링을 통해 멘토가 느끼는 변화와 성장 이야기

# 2019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 사례 작성 가이드라인



**최우수상**

**화상의 아픔을 넘어,  
세상 밖으로!**

| 수상자 | 연보경

① **1. 화상의 아픔을 딛고, 만난 특별한 멘토링 시간!**

메디칼센터에서 화상환자-보호자를 위한 멘토링 사업을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상 환자분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멘토-멘티 중에는 어렸을 때 유지원 화재로 인해 화상을 당해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은 수술 횟수만 40여 차례 받으신 분,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된 아기 때 끓는 물로 인해 팔에 화상을 당해 유년시절과 사춘기를 거치면서 화상자국으로 늘림 받아 왼쪽뺨이 주눅 들어 조음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신 분, 아기 때 다친 몸의 화상자국으로 인해 평생 대중탕과 수영장에 가지 못하시는 분, 교통사고로 인해 화상을 당하신 분, 졸업식 날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서 팔뚝에 화상을 당하신 분, 친구들과 라면을 끓여 먹다가 난로 가스불이 머리에 옮겨 붙어 구에 화상을 당하신 분, 가족과 함께 캠핑 중에 텐트 안에서 자다가 난로 위에 있는 물로 떨어져 화상을 당한 자녀 등 다양한 경우로 갑작스럽게 화상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화상 사고를 겪은 이 분들이 모여 특별한 멘토링 시간을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멘토-멘티와 화상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드레싱을 받다 아픔이 너무 커 의식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화상 부위에 치료를 받는 느낌은 깊게 패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려 철수세미로 긁는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까지 집 안에서만 있으며 겪었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일으킬 만큼 괴로운 심적 스트레스, 더욱이 자녀가 화상을 당했을 경우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으로 굉장히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② **4. 화상의 아픔을 넘어, 세상 밖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 멘토링!**

**울고, 웃고 자유의 시간!**

저희 화상환자-보호자 멘토링에서는 멘토-멘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림 동화 교육을 통해 자신의 화상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동화책을 써내려갑니다. 화상을 겪은 자신의 이야기를 '동화'를 통해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타내면서 아팠던 시간에 대한 눈물과 공감해 줄 수 있는 지지자가 옆에 있어 힘과 위로 를 얻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어디에도 표현하지 못했던 내면의 답답한 응어리가 해소되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림 동화책을 작성하면서 합평과 퇴고의 과정을 거치며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는 글에 성취감을 느낍니다.

동화책 안에서 나는 빛나는 별이 되었고, 꿈 많은 아이가 되었고, 화상중터를 가졌던 소녀에서 더 이상 가리지 않는 당당한 소녀가 되었고, 소극적인 아이에서 적극적인 아이가 되었고, 친구들을 화상의 위험에서 구출해 주는 친구가 되었으며, 손녀에게 화상 중터를 설명해주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화책 안에 내 마음, 내 모습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③ **5. 멘토링 동화책 『세모별 디디』, 하반기 정식 출판 예정! 2,000부 출판 기금 확보!**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파하는 우리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

멘토링을 통해 화상환자-보호자분들의 화상 경험과 마음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녹여낸 동화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만 공유되지 않고, 지역 사회 그리고 국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대중들에게 화상 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6년 7권, 2017년 6권의 동화책이 집필되었고 그 중 우수작 1편 『세모별 디디』는 현재 출판사로 작가이 리딩교육원(아이판)와의 계약을 마치고 금년 2,000부의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멘토링에서도 화상환자-보호자분들이 동화 글을 작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취업에 희망하시는 멘토에게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출판사에 취직하고 싶은 대학생 멘티에게는 전문 작가와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멘토-멘티에게는 동화책을 써내려가면서 내면의 상처를 꺼내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이앤맘>은 우리에게 좋은 인연은 물론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해 주는 지침서 같아요.”

- 멘토 나OO -

“두려움 속에서 아이앤맘을 만나고 참여했지만 이전 그러지 않아요. OO씨가 저에게 주었던 응원과 그리고 OO씨 현재의 모습이 많이 힘이 되거든요. 우리 딸 앞으로 많이 힘들고 아픈 시간 일 테지만 늘 옆에서 사랑하며 실개꿈 키울 거예요!”

- 멘티 김OO -

“제 경험을 동화에 담으며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픈 저를 지켜보며 더 마음 아팠을 나의 가족들에게 당시 미안함과 고마움을 뒤늦게 전하며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 멘토 임OO -

① 소제목 작성 : 긴 사연의 경우 시간의 흐름이나 멘티/멘토의 주요 변화 포인트, 내용의 구분에 따라 소제목 분류

② 차별화된 사례 작성 point : 자신의 멘토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색적인 표현방식이 있을 경우 적극 활용

③ 멘토링 결과 :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결과, 향후 진행 계획 등

(멘토-멘티의 긍정적인 변화 또는 지역 및 주변인에게 미친 영향 등)

# 2019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 사례 작성 가이드라인

---

## 1. 2018년도 멘토링 우수사례집

<https://bit.ly/2ZXULVr>

## 2. 2018년도 멘토링 우수사례 카드뉴스

<https://www.instagram.com/p/B0Se3VPpeFF/>  
<https://www.instagram.com/p/B0SfDYZJpKO/>

## 3. 2018년도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회 현장 스케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wMgWno6SiU&t=36s>

## 4. 공모전 접수 관련 문의처

이메일 : 2019mentoringawards@gmail.com

전화 : 02-333-4882 (운영사무국)

본 가이드라인은 사례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용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사례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멘토와 멘티의 성장과정, 그 속에서의 소중한 경험들,

그리고 무엇보다 멘티를 진심으로 대하는 멘토와 코디네이터의 마음입니다.

'2019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여러분의 진솔한 멘토링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